

관광자원이 많다는 점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어항은 종래의 어선 정박항 개념이 아닌 어촌의 정주생활권으로, 혹은 국민휴양지로 날이 갈수록 그 이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때 울릉도를 정기운항하던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많은 시선을 끌었던 우리나라 유일의 삼사해상공원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사해수욕장과 화진해수욕장이 있어 구계항은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짝짤한 어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계항의 개발이 늦어진 것은 한마디로 어항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었다.

배상청구, 집단행동이 공사지연의 주요인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같은 인식부족이 일반적으로 정부나 행정당국의 관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달갑지 않은(?) 개발의식에 연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그리고 수산청 지정어항의 작업장이 대부분 그러하긴 하지만 협소한 작업장, 지역주민에 의해 발생하는 민원은 구계항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내내 공사관계자들에게 애를 먹였다.

구계항은 예로부터 가자미 오징어 칠돔 방어 쥐치 등 어종이 풍부하여 인근 수산업의 근거지로써, 연간 생산량만도 800톤에 7억2,000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곳이다. 그러나 이같은 좋은 어장과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어항시설은 취약하기 그지없었다. 대체로 우리나라 동해안쪽의 어항개발사정이 그러하긴 했지만 구계항 역시 1989년 첫 개발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유일한 시설

공사 첫해인 1989년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각종 핵폐기물 시설장 문제가 이곳에까지 파급되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는 불문가지였고, 사사건건 핵방성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거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물은 사석경사제 형식의 선착장 86m가 전부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허술한 어항시설은 필연적으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통계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구계항 관내의 가구수는 대략 420가구쯤 되고 인구는 1,600명 가량 된다. 이 가운데 전업이 됐든, 겸업이 됐든 어업과 관련이 있는 가구가 270여가구에 600여명이나 된다.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 게다가 어선수도 동력선이 58척, 무동력선이 27척으로 어촌마을치고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계항에는 1년 내내 가야 외래어선이 단 1척도 이곳에 들르지 않는다. 한마디로 구계항의 시설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웅변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구계항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특히 우리에게 곤란을 안겨준 것은 두가지 문제였다. 한가지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뜻밖에도 주민들의 냉담이었고, 다른 한가지는 원활하지 못한 자재공급이었다.

그동안 어항공사를 계속 해오면서 경험한 일이지만 어느 공사장 할 것 없이 민원은 항상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이 민원이 건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집단 이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항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개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소득증대에 일조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계항 공사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그 농도가 어느 곳보다 심했다.

물론 공사 첫해인 1989년의 주민들의 비협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할만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영덕군에 설치하여 이를 구계항으

로 운반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각종 해폐기물 시설장 문제가 이곳에까지 파급되었던 까닭이다. 그러니 주민들의 반대는 불문가지였고, 사사건건 횡방성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거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민원은 실로 유감이었다. 예를 들자면 '91년의 공사는 금액이 42억원이나 될만큼 대단위 본격적인 공사였다. 당연히 TTP 및 방파같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적이 빈번했으며, 또한 많은 물량의 석재 및 레미콘이 좁은 동네안길을 통해 반입됨으로써 출입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불만과 집단 이기주의는 공사 관계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주민들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태도였다.

손해배상 청구, 데모가 끊이질 않았으며,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절대로 양보하려 들지 않았다.

이로 인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누가 입게 되는가. 아마도 주민들의 생각은 여기에까지 미치지 못했지 아니 했는가하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단체행동으로 빚어지는 결과는 결국 공사지연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시작된 공사이므로 완공을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터인데 이를 중단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걷어내는 드러나지 않지만 엄청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91년 7월말, 주민들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

동해안을 기습한 태풍 글래디스호가 이곳을 강타한 것이다. 석산통행로인 교량이 붕괴되었고, 현장 전기·전화·상수도가 절단되었으며, 무려 보름이 넘게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한 차례 태풍후 주민들 인식 바뀌어

직접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주민들 역시 이로 인해 적지않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바로 이것인 것이다. 언뜻 바다에 돌을 던지고, 방파제를 만들고, 어항시설을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일단 유사시엔 이 모든 것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어항공사가 크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밑 모르는 바다에 한없이 공사비만 쏟아 붓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는 꼭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봐야 깨닫게 되니 안타까운 일이다.

어쨌든 이런 까닭이었던지는 모르나 현장직원 모두가 죽을 힘을 다하고, 또한 주민들의 태도도 한결 누그러져 그이후부터는 일사천리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90년 한해는 말 끝마다 '시멘트'가 튀어나올만큼 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안되어 고통을 겪었다.

일부에서는 어항공사가 크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밑 모르는 바다에 한없이 공사비만 쏟아 붓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는 꼭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봐야 깨닫게 되니 안타까운 일이다.

당시 신도시 건설 붐이 일어 전국적인 대형 건설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시멘트 파동이 극에 달했다. 물론 어느 공사장이나 사정은 마찬가지로였겠지만 특히 다소 외진 곳에서 행해지는 어항공사의 불편함이란 달리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만큼 속을 부글부글 끓게 했다.

어항공사란 결국 자체가 성과를 평가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제때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사람 미칠 노릇이었다.

게다가 옆친 데 덮친 격이라고나 할까. 구계항 레미콘 공급업체인 성신양회가 수해를 입어 침수되는 바람에 그나마 공급되던 레미콘이 끊겨버린 것이다.

약1개월간을 허송세월하면서 현장에 있으려 하니 기가 막히고,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민원, 자재난등이 이제는 추억거리로

그러나 누가 그랬던가. 지나간 것은 모두 아름다운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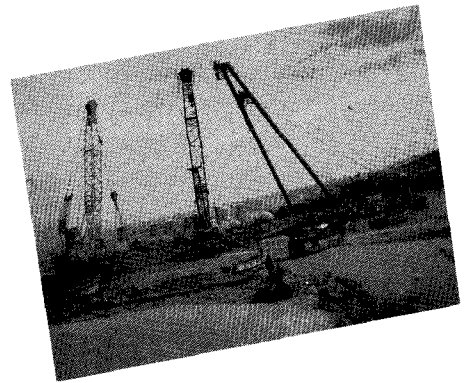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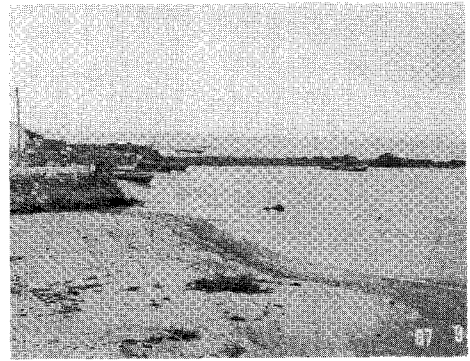
시간이 흐르고, 올해 마침내 구계항의 완공을 본 나의 느낌은 그동안의 고통보다는 이렇게 힘들여 이룩해 놓은 공사가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뿐이다.

어렵풋이나마 어항이 소득증대와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주민들도 막상 완벽한 어항이 눈앞에 드러나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여러가지 의구심을 조금씩 벗어던지는 느낌이 든다.

구계항이 완공됨으로써 새롭게 갖춘 어선수용능력은 10톤급 128척. 이를 토대로 구계항을 잘 활용하고 지속적인 부대시설을 갖춰 나간다면 아마도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임은 당연하다.

일본이 몇십년에 걸쳐 어항을 건설하고, 보강해 온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

이제 바라는 것은 이곳의 많은 주민들과 그간의 오해와 응어리를 풀고 허심탄회하게 소주잔을 나누면서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일이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새삼 새롭게 깨우쳐야 할 요즘이다.

이렇게 구계항을 건설하면서 속을 끓이고 애를 태우다 보니 힘은 어느 어항보다 몇 갑절 더 들었지만 수많은 추억거리가 남는 곳이기도 하다.

이제 바라는 것은 이곳의 많은 주민들과 그간의 오해와 응어리를 풀고 허심탄회하게 소주잔을 나누면서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일이다. 그리고 변명같지만 우리도 어항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눈앞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고 싶다.

그동안 구계항 공사가 원활히 진척될 수 있도록 애쓴 현장직원 여러분과, 함께 땀흘려 주신 수산청 어항과 강영무, 최재학, 오석환 감독관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